

EBS독서력진단 발문 예시

국어분야 - 초등 고급

◎ 국어분야 발문예시

◆ 초등 - 고급

(예시 글) 스갱아저씨네 암염소 -알폰스 도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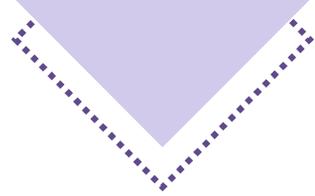
스갱 씨는 자기가 기르는 암염소 때문에 번번이 고생을 했다. 정성들여 키운 암염소들을 다 똑같은 방법으로 잃어버렸던 것이다.

어느 날 아침, 암염소들은 목에 걸린 줄을 끊고 산 속으로 도망쳐 버린다. 그러면 염소들은 하룻밤을 못 넘기고 늑대에게 잡아먹히고 만다. 스갱 씨가 아무리 귀여워해 주어도, 또 늑대가 아무리 무서워도 염소들을 잡아 둘 수 없었다. 묶여 있는 것이 죽기보다 싫었던 염소들로서는 숲 속의 신선한 공기와 자유를 어떻게 해서든 얻고 싶었던 모양이다. 자신이 기르고 있는 염소들의 마음을 전혀 몰랐던 스갱 씨는 큰 슬픔에 잠겨 말했다. "틀렸어. 염소들은 이제 우리 집에 있기가 지겨워진 거야. 앞으로 다시는 염소를 키우지 않을 테야." 이렇게 다짐하면서도 스갱 씨는 희망을 버리지 못했다. 그런 식으로 여섯 마리나 되는 암염소를 잃었는데도 기어이 일곱 번째 염소를 산 것이다. 다만 이번에는 신경을 써서 집에 안전하게 붙어 있을 것 같은 아주 어린 암염소를 골랐다.

스갱 씨네 새 가족이 된 암염소는 몹시도 귀여워 사랑을 한 몸에 받았다. 부드러운 눈매에 마치 하사관 같은 턱수염을 달고, 반들반들한 까만 발굽을 가지고 있었다. 얼룩진 반달 모양의 뿔, 그리고 눈부시도록 하얗고 긴 털은 포근한 코트 같았다. 마치 소설에 나오는 황금 뿔을 가진 염소처럼 사랑스러웠다. 게다가 온순하고 길이 잘 들어서 밭그릇 속에 발을 집어넣는 따위의 나쁜 행동도 하지 않았고, 젖을 짜게끔 안전히 서 있는 세상에서 가장 귀여운 암염소였다. 스갱 씨네 집 뒤뜰에는 산 사나무로 울타리를 친 텃밭이 있었다. 그 곳에다 새로 사 온 암염소를 놓아두었다. 스갱 씨는 가능한 줄을 길게 해 주고 맛있는 풀이 무성한 가장 좋은 장소에 염소를 매어 두려고 늘 신경을 썼다. 그리고 가끔 염소가 잘 지내는지 보러 갔다. 암염소는 행복한 듯 아주 맛있게 풀을 뜯어 먹고 있었으므로 스갱 씨의 마음도 몹시 흐뭇했다. "드디어 우리 집을 싫어하지 않는 염소를 찾아 낸 거야!" 그러나 스갱 씨의 착각이었다. 암염소는 텃밭 안에서 매여 지내는 생활이 점점 답답하게 느껴져 견딜 수가 없었다.

어느 날, 암염소는 산을 바라보면서 생각했다. "저 높은 곳은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내 목을 묶어 매여 상처 내는 밧줄도 없고, 히드나무 무성한 숲 속에서 마음껏 뛰어다닐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울타리를 친 밭에서 풀을 뜯어 먹는 일은 당나귀나 소에겐 어울릴지 몰라도 나 같은 염소에게는 더 넓고 자유로운 땅이 필요하단 말야." 이렇게 생각한 순간부터 울타리 쳐진 텃밭의 풀은 맛을 잃고 아무런 행복도 주지 않았다. 암염소는 날이 갈수록 여위어 이젠 젖도 잘 나오지 않게 되었다. 줄을 끊을 듯 잡아당기고 온종일 산만 바라보다 코를 벌름거리며 슬픈 듯이 매에 하고 우는 모습은 애처롭기 그지없었다. 스갱 씨도 염소가 어딘지 이상하다는 것은 눈치 챘지만 이유를 알지 못해 답답하기는 마찬가지였다. 어느 날 아침, 젖 짜기를 끝내자 암염소가 스갱 씨를 돌아보면서 염소 나라 말로 이야기를 했다. "저어, 스갱 씨.... 제 말 좀 들어 보세요. 저는 당신 집에 묶여 지내는데 질려 버렸어요. 저를 산 속으로 가게 해 주세요. 네?"

"오오, 맵소사! 이녀석." 스갱 씨는 기가 막혀 외쳤다. 그 바람에 들고 있던 젖사발까지 떨어뜨리고 말았다. 스갱 씨는 애써 마음을 진정시키며 암염소 곁에 나란히 앉았다. "왜 그러니, 불량케트? 너도 우리 집에서 나가겠다는 거냐?" "네, 스갱 씨." "왜, 이 곳 풀이 맛이 없어서 그러



니?” “아니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럼 줄이 너무 짧은가 보구나. 줄을 좀 더 길게 해 줄까?” “그런 건 다 필요 없어요. 스갱 씨.”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니? 도대체 뭐가 부족한 거냐?” “산 속으로 가고 싶어요.”

“뭐라고? 큰일 날 소릴 하는구나. 너는 산 속에 무서운 늑대들이 득실거리는 걸 모르니? 만약 늑대가 덤벼들면 어떻게 한 테냐?” “뿔로 받아 버리죠. 뭐.”

“늑대는 네 뿔 따위는 조금도 무서워하지 않는단다. 너보다 훨씬 센 뿔을 가진 어미염소들도 얼마나 많이 잡아먹혔는지 아니? 작년에 여기 있던 가엾은 르노드 할머니를 알고 있겠지? 수놈처럼 힘세고 고집 불통이어서 대장 노릇을 했었잖니. 그 염소 할머니는 밤새도록 늑대와 싸웠단다. 하지만 아침이 되자 기진맥진해서 결국에는 늑대에게 먹혀 버리고 말았지.” “아, 불쌍한 르노드 할머니! 하지만 상관없어요. 스갱 씨, 절 산으로 가게 해 주세요.” 스갱 씨가 말했다.

“도대체 우리 집 염소들은 한결 같이 왜 이러는 걸까? 좋아. 아...아니, 안 돼! 네가 뭐라고 하든 난 너를 늑대 밥이 되게 할 순 없다. 이 말쑥꾸러기야! 네가 밧줄을 끊으면 안 되니까 이제부터 헛간에 가두어 놓아야겠다. 내 말 알아듣겠니? 산에 갈 맘이 없어질 때까지 거기 있어야 해!”

스갱 씨는 암염소를 깜깜한 헛간으로 끌고 가 문을 두 겹으로 잠가 버렸다. 하지만 창문 닫는 것을 깜박 잊어 버린 탓에 스갱 씨가 뒤돌아서 나가자마자 암염소는 도망치고 말았다. 흰 염소가 산에 이르자 숲이 환호성을 울리며 환영해 주었다. 늙은 전나무는 이렇게 아름다운 암염소는 처음 본다며 황홀해했다. 암염소는 마치 여왕이 된 듯한 기분에 젖었다. 밤나무는 가지 끝으로 암염소를 쓰다듬어 주려고 땅에 닿을 듯이 몸을 숙였다. 황금빛 금작화는 염소가 지나는 길마다 꽃을 피우며 끊임없이 향기를 뿜어 댔다. 아무튼 온 산이 희고 아름다운 암염소를 환영했다. 암염소의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컸다. 목을 움아매던 밧줄도, 말뚝도 없었다. 신나게 뛰놀며 자유롭게 풀을 뜯어 먹어도 아무도 간섭하지 않았으니까. ‘바로 여기야. 맛있는 풀이 있는 곳! 뿔까지 닿을 정도로 무성하게 자라 있잖아. 어쩔 이렇게 풀이 많을까! 향기로운 것과 연한 것 그리고 가장자리가 들쭉날쭉한 것 등 여러 가지가 있네. 밧의 풀하고는 전혀 다른걸! 게다가 꽃까지...!’

금지막한 푸른 꽃송이를 자랑하는 도라지, 길쭉한 꽃받침을 가진 새빨간 디기탈리스...향기로운 즙을 가진 야생화들이 온 산 가득 흐드러지게 피어 있었다. 암염소는 취한 듯이 하늘을 바라보며 뒹굴기도 하고, 낙엽이나 도토리나 뒤섞여 언덕에서 구르기도 했다. 그러다 갑자기 별떡 일어났다.

“자, 가자!” 암염소는 달리기 시작했다. 머리를 앞으로 숙 내밀고 덤불을 빠져 나가 회양목이 무성한 숲을 지나 험한 벼랑에 오르기도 하고 계곡 아래로 내려가기도 했다. 높은 곳에 있나 싶으면 어느 새 낮은 곳으로 내려와 정신없이 뛰어다녔다. 마치 산에 스갱 씨네 염소가 10마리쯤 있는 듯 한 느낌이 들 정도로 이리 번쩍 저리 번쩍했다. 암염소 불량케트는 이제 두려울 게 없었다. 물살 급한 시내를 뛰어 넘으며 물보라를 일으킬 때면 흙먼지와 물방울이 뒤섞여 온몸에 튀었다. 그렇게 해서 흠뻑 젖으면 평평한 바위에 편안히 누워 햇볕에 몸을 말렸다.

한번은 황금빛 금작화 송이를 입에 물고 산마루로 나갔다. 아득히 먼 저 아래 쪽 들판 한 귀퉁이에 자신이 늘 묶여 지냈던 스갱 씨네 뒤뜰이 보였다. 그것을 보고 암염소는 눈물이 나올 정도로 웃었다.

“어쩔, 저렇게도 작을까!” 암염소는 생각했다. ‘내가 어떻게 저런 곳에 틀어박혀 암전히 지낼 수



있었을까?’ 가없는 블랑케트..... 높은 곳에 서 있다 보니 자신이 몹시 위대한 존재라도 된 듯한 착각에 빠지고 만 것이다. 어쨌든 이 날은 스갱 씨네 암염소에게 있어서는 무척 특별한 날이었다. 점심때쯤 여기저기를 뛰어 돌아다니던 암염소는 머루를 아드득아드득 씹어 먹고 있는 영양의 무리를 만나게 되었다. 하얀 드레스 차림의 암염소 블랑케트는 영양들에게 마치 여왕처럼 보였다. 영양들은 머루가 가장 많은 장소를 앞 다투어 가르쳐 주며 암염소의 관심을 끌려고 애를 썼다. 특히 젊은 영양들은 블랑케트 주위에 몰려들어 마치 점잖은 신사처럼 기사도 정신을 베풀었다. 그 중에서 온 좋게도 멋진 검은 털을 가진 젊은 영양이 블랑케트의 마음에 들었던 모양이다. 둘은 연인처럼 다정하게 한두 시간 정도 숲 속을 거닐며 보냈다. 이들이 무슨 말을 주고받았는지 알고 싶으면 이끼 밑으로 남몰래 흐르고 있는 수다쟁이 샘물에게 물어 보라.

갑자기 바람이 쌀쌀해졌다. 산이 온통 보랏빛으로 물드는 저녁이 온 것이다. “아니, 벌써...!” 염소는 깜짝 놀라 그 자리에 멈춰 섰다. 아래쪽 들판은 벌써 안개 속에 조용히 잠들어 있었다. 스갱 씨의 발은 안개에 묻혀 버렸고, 자그마한 집은 겨우 희미한 연기가 피어오르는 지붕밖에 보이지 않았다. 블랑케트는 집으로 돌아가는 양떼의 방울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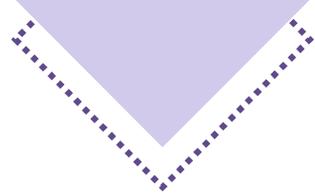
문득 가슴 가득 외로움이 퍼졌다. 등지로 돌아가는 때 한 마리가 암염소를 스치듯이 날아갔다. 새하얀 암염소는 소스라치게 놀라 몸서리를 쳤다. 그 순간 깊은 산골짜기에서 온 몸에 소름이 돋게 하는 무시무시한 소리가 들려 왔다. 우우, 우우! 문득 암염소의 뇌리에 사나운 늑대의 모습이 스쳐 지나갔다. 온종일 마음이 들떠서 돌아다니느라 늑대 같은 것은 생각지도 않고 있었던 것이다. 바로 그 때, 나팔 소리가 계곡 깊숙이 울려 퍼졌다. 마음씨 고운 스갱 씨가 암염소를 위해 마지막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다.

우우, 우우! 이제 늑대는 더욱 가까워서 울부짖었다. “돌아와! 어서 돌아와!” 늑대의 위협에 뒤질세라 나팔이 애타게 암염소를 불렀다. 마음이 불안해진 블랑케트는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졌다. 하지만 목을 죄어 대는 밧줄과 말뚝 그리고 발을 둘러싸고 있는 울타리가 머릿속에 떠올랐다.

‘앞으로 도저히 그런 생활은 할 수 없을 것 같아. 무섭긴 하지만 이 곳에서 자유롭게 사는 게 나아.’ 이제 나팔 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암염소의 등 뒤에서 나뭇잎 바스락대는 소리가 들려 왔다. 깜짝 놀라 돌아보니 어둠 속에서 바짝 세운 귀와 번쩍번쩍 빛나는 두 눈이 번득였다. 늑대였다. 엄청나게 큰 늑대는 뒷발로 딱 버티고 앉은 채 꼼짝도 하지 않았다. 늑대는 새하얀 암염소를 뚫어져라 쳐다보면서 군침을 삼켰다. 어차피 자기 먹이가 될 줄 알고 있는 늑대는 결코 서두르지 않았다. 겁에 질려 있는 암염소를 어떻게 먹을까 생각하며 심술궂게 웃었다.

“흐흐흐, 스갱 씨의 귀여운 암염소로군.” 늑대는 이렇게 말하고는 기다랗고 시뻘건 혀를 날름거리면서 입맛을 다셨다. 블랑케트는 달달 떨어 생각했다. ‘이제 꼼짝없이 죽었구나...’ 그 순간 밤새도록 늑대와 싸우다가 결국 아침에 잡아먹혔다는 르노드 할머니의 일이 떠올랐다. 차라리 지금 당장 잡아먹히는 편이 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암염소는 고개를 흔들며 마음을 고쳐먹었다. 그리고는, “나도 스갱 씨의 용감한 염소다!” 라고 말하기라도 하듯 머리를 낮추고 뿔을 앞으로 내밀며 싸울 태세를 갖추었다. 물론 늑대를 죽일 수 있다는 희망 같은 건 없었다. 수많은 염소들이 한꺼번에 달려들어도 늑대를 이길 가능성은 희박하니까. 단지 르노드 할머니만큼 용감하게, 또 오랫동안 버틸 수 있을지를 시험해 보고 싶었다.

그 때, 무시무시한 괴물이 으르렁거리며 다가왔다. 그러자 작은 뿔도 춤추기 시작했다. 아아, 용감한 암염소! 얼마나 힘차게 싸웠는지! 늑대는 열 번 이상이나 뒤로 물러서서 숨을 몰아 쉬어야만 했다. 이렇게 짧은 휴전 기간 동안에도 암염소는 주위에 돌아 있는 풀을 급히 뜯어 입 안 가



득히 넣고 돌아와서는 다시 싸웠다. 싸움은 밤새도록 계속되었다. 암염소는 이따금씩 하늘에 반짝이는 수많은 별을 보며 생각했다.

‘아, 새벽까지만 버틸 수 있다면...’ 별이 하나둘씩 사라져 갔다. 블랑케트는 점점 더 거세게 뿔을 휘둘렀고 늑대는 어금니를 날카롭게 번득이며 공격했다. 어렴풋이 한 줄 빛이 지평선 위에 비치기 시작했다. 저 아래 스갱 씨네 텃밭에서 수탉 한 마리가 쉼 목소리로 새벽을 알렸다. “아, 드디어 날이...!”

아침이 올 때 까지 버티겠다며 애타게 날이 밝기만을 기다리던 암염소가 외쳤다. 그리고는 그 아름다운 흰털을 온통 붉은 피로 물들인 채 땅 위로 쓰러졌다. 늑대는 암염소에게 달려들어 단숨에 먹어 치웠다.



1단계 (이해)

- 책 속에서 질문하고 책 속에서 대답하기

1단계 : 책 속에서 질문하고 책 속에서 대답하기

1단계 발문의 목적은 책 1권을 끝까지 읽고 책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할 수 있는 질문을 만들어 보는 활동입니다. 가급적 책 전체 내용에서 중요한 사실을 물어보고, 책의 중요한 내용을 이해하여 자신의 말로 표현할 수 있는지 그리고 책의 내용을 좀 더 깊이 있게 따져볼 수 있는지를 알아볼 수 있는 질문을 통해 읽은 책에 대하여 충분히 생각해 보게 하는 것입니다.

◆ 내용 파악 발문

책을 읽었다면 꼭 알 수 있는 사실에 대하여 알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한 질문을 해 보세요. (2~3개)

발 문1	스갱 씨가 아무리 귀여워해 주어도, 또 늑대가 아무리 무서워도 염소들을 잡아 둘 수 없었던 까닭은 무엇인가요?
예 시	-염소들은 묶여 있는 것이 죽기보다 싫었고, 숲 속의 신선한 공기와 자유를 어떻게 해서든 얻고 싶었기 때문이다.
발 문2	마음씨 고운 스갱 씨가 암염소 블랑케트를 위해 나팔을 불어 돌아올수 있도록 하였지만 블랑케트는 결국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하지 않았나요?
예 시	-블랑케트는 자신의 목을 죄어 대는 밧줄과 말뚝 그리고 발을 둘러싸고 있는 울타리에 갇혀 지내는 것보다 무섭긴 하지만 산 속에서 자유롭게 사는 게 낫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발 문3	블랑케트가 늑대를 죽일 수 있다는 희망이 없었지만 늑대와 밤새 싸워보려고 용감하게 머리를 낮추고 덤벼든 까닭은 무엇인가?
예 시	-르노드 할머니만큼 용감하게, 또 오랫동안 버틸 수 있을지를 시험해 보고 싶었기 때문이다.

◆ 내용 이해 발문

책의 중요한 내용을 완전히 이해하여 자신의 말로 설명할 수 있는지 확인해볼 수 있는 질문을 해 보세요. (2~3개)

발 문1	블랑케트는 스갱 아저씨의 집에서의 생활을 처음엔 만족하지만 곧 싫증을 내고 맙니다. 블랑케트가 살았던 스갱 씨의 집과 산 속의 생활을 비교하여 설명해 보세요.
예 시	-스갱 씨의 집은 먹이도 풍부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지만 늑대에게 잡아먹힐 만큼 위험한 곳이다. 산 속은 자유롭고 다양한 환경과 새로운 친구를 만날 가능성이 많지만, 안전하고 편안하지 않다.
발 문2	블랑케트가 아득히 먼 아래 쪽 들판을 내려다보며 '모두가 작게 보인다'보인다는 생각과 함께 '자신이 몹시 위대한 존재'가 된 듯한 착각을 하게 된 까닭은 무엇일까요?
예 시	-블랑케트가 스스로의 의지로 자유를 선택했기 때문에 자신의 용기와 도전에 뿌듯함을 느꼈을 것이다.

2단계(탐구)

- 책 속에서 질문하고 책 속이나 책 밖에서 대답하기

2단계 : 책 속에서 질문하고, 책 속이나 책 밖에서 대답하기

2단계 발문의 목적은 읽은 책의 내용에서 머물지 않고 책의 내용을 재 구성 혹은 재해석 해보거나 책의 내용을 나와 현실, 사회 문제와 연결지어 생각해 봄으로써 질문을 통해 독서의 융합적 사고력을 신장시키고자 합니다.

◆ 상상 발문1

책의 내용을 바탕으로 상상해 볼 수 있는 질문을 해 보세요.

발 문	스갱아저씨가 블랑케트를 자주 산 속으로 데리고 나가 자유를 느끼게 해주었거나, 낮에는 밖에서 뛰놀고 밤이 되면 함께 집으로 돌아오는 자유를 자주 누리게 해주었다면 블랑케트는 어떻게 행동했을까?
예 시	-산 속에서의 자유를 느낀 블랑케트는 자유로움의 기억이 때문에 자유를 더 원하게 되어 더 산 속으로 가고 싶을 것이다. -스갱 씨가 자주 산 속의 블랑케트를 데리고 가서 자유로움을 느끼게 해주면 블랑케트는 자유로움을 크게 바라지 않을 것이다. -자주 산 속에 데려가면 산 속의 위험함을 자세히 알게 되어 스갱 씨 몰래 산 속으로 가는 일이 없을 것이다.

◆ 상상 발문2

책의 내용을 '만약에~' 라는 말을 넣어 인물, 사건, 배경을 바꾸어 상상해 볼 수 있는 질문을 해 보세요.

발 문1	만약에 내가 블랑케트였다면 나는 스갱 씨의 집에서의 생활과 산 속에서의 생활 중 어떤 선택을 했을까?
예 시	-나는 자유를 선택했을 것이다. 블랑케트처럼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자유롭게 선택하고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나는 스갱 씨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다. 자유로운 삶이 부럽지만 위험한 것을 알고도 도전할 경우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나 위험에 빠져 후회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발 문2	울타리를 친 텃밭에서 스갱 씨가 블랑케트를 줄에 묶어 둔 것은 우리 주변의 어떤 상황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예 시	-아이들이 여러 학원을 다니느라 자유롭게 놀지 못하는 상황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다양한 시도를 하지 못하는 경우 -바쁘게 살아가느라 자신의 꿈에 대해 생각해보지 못하는 상황

◆ 분석 발문1

책의 내용을 더 깊이 있게 이해하기 위해 내용의 앞뒤 관계를 따져보거나 내용을 나누어 생각하기 혹은 내용을 종합하여 생각해 볼 수 있는 질문을 해 보세요. (1~2개)

발 문1	블랑케트가 온 힘을 다해 끝까지 늑대와 싸워 보기로 한 것으로 보아 블랑케트의 어떤 성격을 엿볼 수 있나요?
예 시	'-르노드 할머니만큼 용감하게 오랫동안 버틸 수 있는지 시험해 보고 싶었다.' 라는 구절로 보아 블랑케트는 용기있고 의지가 강한 성격이라고 할 수 있다.
발 문2	블랑케트는 늑대에게 당장 잡아먹히지 않고 새벽까지 늑대에게 덤비며 버티려고 노력하였을까요?
예 시	-스갱 씨가 저녁까지 자기를 찾다가 아침이 되면 다시 찾으러 오기를 바랬을 것이다. -늑대는 야행성이므로 해가 뜨기 시작하면 물러날 것이라 생각했을 것이다. -자기가 할머니보다 더 젊어 더 오래 버틸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을 것이다.

◆ 분석 발문2

작가가 독자에게 책을 통해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인지 파악할 수 있는 질문 해 보세요.

발 문	스갱 씨의 염소는 자유를 얻는 대신 늑대의 먹이가 됩니다. 작가는 이 글의 마지막 '블랑케트의 죽음'부분에서 어떤 생각을 하기를 바랬을까요?
예 시	-자신이 도전 하는 일이 가치있는 것인지 생각해보고 선택하자. -자신의 선택이 원치 않는 결과를 만들더라도 스스로 만족한다면 가치있는 선택이라고 할 수 있는지 생각해보자.

3단계 (확장)

- 책 밖에서 질문하고 책 밖에서 대답하기

3단계 : 책 밖에서 질문하고 책 밖에서 대답하기

3단계 발문의 목적은 독서 활동을 통해 얻은 배경지식과 신장된 사고력을 내면화시켜 인문학적 소양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질문을 통해 책이 주는 가치와 메시지 혹은 그와 관련하여 새로운 관점을 형성하여 정신적 풍요로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 적용 발문

책의 내용을 인간의 삶이나 사회현상과 관련지어 생각해 볼 수 있는 질문을 해 보세요.

발 문	블랑케트가 늑대가 도사리고 있음을 알고도 스갱씨의 나팔소리를 따라 돌아가지 않고, 산 속으로 남아 있었던 것은 블랑케트의 행동은 용기있는 도전일까요? 무모한 도전일까요?
예 시	-블랑케트가 늑대의 위협을 알고도 스갱 씨의 나팔 소리를 따라 돌아가지 않은 것은 용기있는 선택이다. 블랑케트는 스갱 씨에게 돌아갈 수도 있었는데도 스스로 자유를 선택하고 도전했기 때문이다. -늑대로부터의 위협을 알고도 자유로운 산 속에 남은 것은 무모한 도전이다. 블랑케트는 늑대의 위협을 너무 과소평가하여 원하지 않는 위험한 상황에 처한 것이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잘 구별하지 못한 경솔한 행동이다.

◆ 가치 발문

책의 내용과 관련하여 소중하게 다루어야 하는 가치에 대하여 생각해 볼 수 있는 질문을 해 보세요.

발 문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이루기 힘들어 보이는 꿈을 포기하지 않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삶은 가치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이루기 힘든 꿈을 쫓아가느라 많은 시간을 보내고 도전하는 것은 어리석은 도전일까요?
예 시	-꿈을 좇아 살아가는 길을 선택하여 안정적인 삶을 포기했더라도 그 사람의 선택이므로 가치있게 바라보고 존중해주어야 한다. -안정적 삶을 살기 위해, 자신의 꿈을 포기하고 살아가는 길을 선택했더라도 그 사람의 선택이므로 가치있게 바라보고 존중해 주어야 한다. 어떤 선택이든 자신의 몫이므로 자신의 선택에 따른 결과에 책임감있게 행동하면 그 선택은 옳은 것이다.

◆ 창의 발문

책을 내용을 바탕으로 현재를 새로운 관점으로 바라보게 하거나, 현재의 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질문해 보세요.

발 문	블랑게트는 스갱 씨에게 산으로 보내 달라고 하였지만, 오히려 블랑게트를 가두었습니다. 스갱 씨가 블랑게트의 마음을 읽지 못한 것처럼 여러분도 다른 사람의 마음을 제대로 읽지 못해 서로 갈등 한 적이 있나요? 있다면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좋을까요?
예 시	-친구의 마음을 제대로 읽지 못해 친구와 다툰 때가 있다. 친구 입장에서 바라보고 생각해 주는 자세로 대한다면 서로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부모가 자녀를 지나치게 보호하거나 자녀의 의견을 듣지 않고 일방적으로 결정하여 갈등하는 경우가 있다. 자녀에게 다양한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여 자녀가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현명하게 잘 선택할 수 있는 지혜를 길러주어야 한다. 그리고 스스로 선택한 행동에 대해 책임감을 발휘하여 실패를 통해 스스로 꿈을 찾아내고 다양한 창의성이 발휘해낼 수 있도록 이끌어주도록 해야 한다.